

“처방약 같았던 문학, 이제 세상을 위해 쓸게요”

본보 신춘문예 당선자 인터뷰

소설 송은유

문학은 절친이자 스승

항상 진실의 편에 설 것

시 김정현

포기 문턱서 손 내민 행운

“시는 여전히 어렵다”

동화 신수나

아이 머리맡서 읽던 동화

창작의 길 가게 돼 기뻐



지난 23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2018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상식이 끝나고 영예의 당선자인 김정현(왼쪽부터) 시인, 신수나 동화작가, 송은유 작가가 포즈를 취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그동안 많이 해왔고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한숨 돌리고 나면 어느새 내 속에서 이게 아니냐 어쩌라는 것인가, 하는 절박한 외침이 들려왔어요.”(송은유 소설 당선자) “너무도 기다리던 순간이라 지금도 어리둥절합니다. 저보다 지인분들이 더 놀랐고 저는 기쁨을 조금 감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김정현 시 당선자) “준비가 덜 됐는데, 덜컥 당선부터 된 건 아닌가 걱정이 들어요. 포기하지 말고 더욱 정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신수나 동화 당선자)

신춘문예 하면 떠오르는 고전적인 명언이 있다. 박병신 작가의 ‘문학, 목매달아 죽어도 좋을 나무’라는 당선 소감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날의 시대에도 그 말이 유효한지는 의문이지만 그만큼 문학에 대한 열망이 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18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자들에게서도 문학에 대한 열정과 치열한 도전 정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 23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2018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자 시상식에서 올해의 수상자들을 만났다. 이들로부터 당선 소감, 문학을 하게 된 계기, 향후 창작 계획 등 궁금한 이야기를 들었다.

송은유 소설(‘떡을 잇다’) 당선자는 소감이 어떠한가에 물음에 “부담스럽고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상처받기 쉬운 것에 귀를 기울이고 부서지지 않는 아

름다움과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지워지지 않는 진실의 편에 항상 서 있겠다”며 “개인의 상처가 객관화돼 세상으로 나갈 때 그것이 곧 사회의 보편적 양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현 시(‘불의 약공들’) 당선자는 “매번 느끼지만 제게 시 쓰기는 아직도 어렵다. 하지만 여전히 쓰고 싶고 더 열심히 읽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다. 심사위원들로부터 “자기세계가 분명한 개성적인 스타일의 시”라는 평을 받은 김 씨는 오랫동안 신춘문예에 도전했다. 그러나 계속 문이 열리지 않아 포기할까 생각을 하던 차에 행운의 여신이 손을 내밀었다고 한다.

신수나 동화(‘호통버스’) 당선자도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각오를 대신했다. “창작 수업 과정이 길어지면서 그냥 독자로 남아 있을까도 생각했는데 마침내 당선 됐다”며 “아직도 많이 모자라고 허술지만 정진하겠다”며 웃었다.

그렇다면 당선자들은 어떤 계기로 문학의 길로 들어서게 됐을까. 대개의 경우 창작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단단히 ‘뭉’이 꽂히는 순간이 있기 마련이다.

“유년시절 고흥의 재동서원(齋洞書院)이라는 곳은 제 성장의 터전이었어요. 산중의 서원은 사계절 산과 들과 넓은 하늘과 바람소리를 안고 있었습니니다. 평화로웠지만 파분할 정도로 외로웠지요. 당시 문학은 내게 더없이 좋은 친구이자 스승으

로 다가왔죠.”(송은유)

송 작가는 이어 “소설을 쓰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족과의 갑작스런 이별이 문학에 뿌리를 내리는데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계기가 됐다고도 언급했다.

김 시인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시를 접하게 돼 문학을 전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꾸만 연습장에 이상한 문장을 쓰고 있었고 그렇게 신나게 적어 내려갔던 때가 재미있었다”고 회상했다. “결혼해 아이를 키우면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특히 어린이 책을 좋아했지요. 제가 아들만 있는데 아이들이 자기 전에 꼭 책을 읽어달라고 했거든요. 수년 전 마음을 닦는 ‘내 생의 첫 작가수업’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시와 동화를 쓰는 작가 선생님을 보고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신수나)

창작 공부를 하는 동안은 좋아하는 작가나 작품에 매료될 때가 있다. 롤 모델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경외감과 함께 도전정신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좋아하는 작가에 대해 물었다.

송 씨는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가 특별했다고 한다. 인간의 실존철학이 담긴 이 소설은 삶이 고단할 때면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는 거였다.

신 씨는 존 버닝햄을 꼽았다. 간결한 문

체와 어설픈 그림이 특징인데 그 속에 촌철살인의 풍자와 메시지가 맑고 와 닿는다는 것이다.

“저는 김수영 시인의 ‘어느 날 고궁(古宮)을 나오면서’를 좋아합니다. 김수영이라는 시인은 가장 정직하게 제 마음 깊이 자리하고 있지요.”

김정현 시인은 김수영을 떠올릴 때면 큰 산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세 당선자는 이제 ‘작가인생’이라는 길고 긴 출발선에 섰다. 사실 당선보다 더 힘든 게 그 이후의 여정이다. 신춘문예 당선작이 마지막 작품인 경우가 적지 않을 정도로, 당선 이후의 창작활동은 녹록지 않다.

“슬픔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소설 쓰기는 약과 같다”는 송 작가는 “창작하는 과정이 나와 동일시 될 때 나 스스로가 나를 평범하고 자유롭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치유가 되고 삶의 동력으로 작동되는 글을 쓰겠노라”고 밝혔다.

“모든 작가는 자신의 글을 쓰고 싶어 합니다. 작은 소망이 있다면 누군가 사랑과 고독과 욕망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의 작품과 제 작품을 함께 이야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김정현)

신 작가는 “내가 밭 밟고 서 있는 땅에 관한 이야기에 흥미를 갖고 있다”며 “지역의 설화나 민담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동화로 창작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있는 그대로의 언어로 그린 시적 세계

허근 시집 ‘꽃과 고목’ 발간

문학동인 ‘시와산문’ 회장을 역임했던 순천 출신 허근 시인이 최근 시집 ‘꽃과 고목’(사람들·사진)을 펴냈다.



이번 시집에서도 시인은 있는 그대로의 언어와 화법으로 시적 세계를 선보인다. 형이상학적인 시들과 세련된 기법으로 형상화된 시들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그의 시는 ‘순수함’으로 눈길을 끈다.

‘선소의 가을’, ‘자운영 꽃’, ‘목련’, ‘동반’, ‘뽕따먹기’ 등 70여 편의 시는 어떤 경향이든 부류에도 편입되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를 향해 정진하는 시

적 지향점을 보여준다.

“목이 길었다/ 겨우내 온기 그리워하다/ 소 따라 들에 나왔다/ 아이 젖 먹이다/ 들에 나온 푸석한 새데/ 가만 가만 심호흡하고/ 꽃에 코대고 눈 감았다// 머리 위로 물총새가/ 손살같이 지나갔다”(‘자운영 꽃’)

‘자운영 꽃’은 평온한 들녘의 풍경을 순수한 서정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단아하면서도 깊이와 서정이 느껴지는 시는 시인의 시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시인은 짧은 서문에서 “나는 매일 밤 순천역에서 어디론가 떠도는 꿈을 꾸다”는 말로 시 발간 의미를 갈무리한다.

한편 허근 시인은 1996년 월간 ‘순수문학’에 ‘나목이 서 있는 거리’와 4편으로 시가 추천돼 문단에 나왔다. 지금까지 시집 ‘용수산 꽃길’, ‘꽃과 고목’ 등을 펴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무비톡톡 28일 ‘소셜 네트워크’ 상영

무비톡톡 7번째 영화상영회가 오는 28일 오후 3시 전대후문 에포케에서 열린다.

무비톡톡은 한 달에 한 번 영화를 함께 보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영화 모임이다.

이번에 상영할 영화는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사진)’로 이 영화를 통해 SNS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문화봉사단체 ‘라이프’의 임경석 문화팀장의 진행으로 시작하는 이번 모

임은 영화 ‘소셜 네트워크’ 상영 후 참여자들이 느낀 점과 인상깊었던 장면 및 대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평소에 다양한 영화를 감상하는 것을 좋아하고 여러 사람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참가비용은 무이다.

무비톡톡은 ‘싱 스트리트’, ‘죽여왕’, ‘비포선라이즈’, ‘클로저’, ‘캐롤’ 등을 상영하기도 했다.

/전은재기자 ej621@kwangju.co.kr

국립민속박물관 공개 구매품 29일~2월2일 접수

국립민속박물관은 올해 개최되는 특별전 주제인 소금, 수제화, 돼지띠 관련 유물과 상설전 교체 대상 물품인 의복, 고문서, 서화를 공개 구매한다.

소금 관련 자료는 국내외 소금 관련 유물, 회화, 고급 소금통, 생활용품, 국외 소금 영상 등이며 수제화 관련 자료는 구두, 구두재료, 제작도구, 수선 도구, 잡지 등 문헌, 광고지, 포스터,

사진, 영상 등이다.

서류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진행되며, 심의를 거쳐 구매 여부도 확정된다. 소장 이력이 불분명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는 구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민속박물관 누리집(www.nf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를 받은 유니크한 디자인과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옥각형)사용 및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효과)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건강을 생각한 속옷입니다.

아모리이온

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이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 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 아모르

러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

대표전화 1588-2219